

파격 실험했으나...아직도 조합해볼 게 많은 벤투호 공격진

내일 투르크메니스탄과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1차전

이재성 · 황인범 · 김신욱 등 뛰지 않은 자원 많아...최상 조합 오리무중

지난 6일(이하 한국시간) 열린 조지아와의 평가전은 예상 외로 많은 실험이 펼쳐졌다. 벤투 감독의 지난 1년 대표팀 운영 방향을 봤을 때, 다가오는 '실질(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을 앞두고 안정적인 최종 점검에 90분을 투자하지 않을까 싶었으나 투쟁을 열어보니 의외의 포석이 펼쳐졌다.

당시 벤투 감독은 부임 후 즐겨 활용하던 4-1-3-2나 4-2-3-1, 4-4-2 등 포백 기반의 포메이션이 아닌 스리백을 기동시켰다. 장기 레이스인 월드컵 지역예선을 앞두고 플랜A의 뒤를 받칠 또 다른 옵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때문에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예선 1차전을 닷새 앞둔 시점에서 과감한 테스트를 진행했다.

에이스 손흥민 파트너로 이정협과 황의조를 번갈아 투입했고 공격형MF로는 '막내형' 이강인을 선발로 넣었다. 오른쪽 윙백에 잘츠부르크 소속의 공격수 황희찬을 배치시킨 것은 사실 파격 결정이었다. 수비형MF 백승호 선발과 A매치 데뷔전을 치른 수문장 구성윤까지, 조합과 면면이 예상됐다.

많이 바뀐 탓에 경기력은 매끄럽지 않았다. 벤투 스스로 "부임 후 최악"이라 표현했던 전반전을 포함해 90분 내내 뼈각거렸다. 황의조의 2골로 비기기는 했으나 내용은 후한 점수를 줄 수 없었다. 하지만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필요한 실험이었다는 긍정적 평가도 적잖다. 오랜만에 '평가전을 평가전답게 활용했다'는 반응도 들었다.

사실 벤투호는, 공격 2선 위로는 꽤 좋은 자원이 많아 감독 입장에서는 '행복한 고민'이 들 수 있는 상황이다. 누구를 어떻게 누구와 세워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계산이 쉽지 않다. 조지아전에서 벤투 감독은 오랜만에 6장의 교체카드를 모두 활용했는데, 그중 4장을 공격수 교체(황의조, 나상호, 이동경, 김보경)에 썼다는 것도 고민할 게 많다는 방증이다.

그렇게 열심히 퍼즐을 돌리고 끼워보았는데 여전히 최상의 조합은 오리무중이다. 심지어 아직 확인해보지 못한 조합도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전 선발 라인업 자체가 쉽게 예상되지 않는 수준이다.

축구대표팀은 오는 10일 오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을 상대로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1차전을 갖는다.

벤투호의 궁극적인 지향점인 카타르 월드컵으로 가는 첫 단추라는 측면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경기다. 한국의 전력이 객관적으로 앞서나 '1차전'이라는 부담을 감안해야하고 특히 조지아전에서 졸전에 그쳤던 터라 더 강한 정신력과 집중력이 요구된다.

벤투 감독은 조지아전 그리고 경기 전후로 실시한 훈련을 통해 도출한 정예멤버를 가동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심사는 공격 조합이다. 에이스 손흥민이 어떤 형태로든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나 조합과 형태는 안개 속에 있다.

최전방의 변수는 장신 스트라이커 김신욱이다. 벤투호 출항 후 단 한 번도 대표팀에 선발되지 않았던 김신욱은, '아시아 예선'이라는 현실을 인정한 벤투 감독의 선택과 함께 오랜만에 합류했다. 그런데 조지아전에서는 단 1분도 뛰지 않았다.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경기를 위한 '비기'로 삼은 것이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6일(한국시간) 터키 이스탄불 파티흐 테림 연습경기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오는 10일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첫 경기를 치른다.

지, 아니면 이전처럼 경기 막판에 '뭉뚱'을 위한 것인지 물음표다. 공격 2선에는 그동안 벤투 감독의 신임을 받았던 2명의 선수가 베일에 가려져 있다. 독일 분데스리가 2 홈슈타인 킬에서 득점포까지 가동하고 있는 팔방미인 이재성 그리고 '벤투호의 황태자'라는 수식까지 받고 있는 MLS 맨큐버의 황인범이 주인공. 두 선수는 조지아전에서 벤치만 지켰는

데, 이전까지의 신뢰도를 봤을 때 출격이 예상된다. 또 조지아전에서 '깜짝 윙백'으로 외도를 했던 황희찬의 공격수 복귀도 충분히 고려할 사나리다. 황희찬은 올 시즌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벌써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작성하는 등 팔팔 날고 있다. 옹크리고 있을 상대를 감안해 '공격적 윙백'을 테스트해보기는 했으나 정상적인 공격형 옵션으

로 활용해도 큰 무리 없는 지원이다. 이들이 경기에 나선다면 조지아전 조합과는 또 다른 그림이 그려질 공산이 크다. 투르크메니스탄 감독도 예상치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현재 벤투호의 가장 큰 장점이다. 단, 조지아전처럼 엄청난 조직력이 나오면 곤란하다. 혼란은 상대에게 주는 것으로 끝나야한다.



'ERA 0.51' KIA 양현중, 8월 MVP 선정

올 시즌 2번째 수상

KIA 타이거즈 양현중이 2019 신한은행 마야카 KBO리그 8월 MVP에 선정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KBO리그 타이틀스폰서 신한은행과 공동 시상하는 8월 MVP로 양현중이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양현중의 KBO 월간 MVP 수상은 지난 5월에 이어 올 시즌 두 번째다.

월간 MVP는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와 신한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한SOL(솔)'에서

진행한 팬 투표 결과를 각각 50% 비율로 합산해 정한다.

양현중은 기자단 투표(29표 중 7표)와 팬 투표(6만5422표 중 3만8822표)를 통해 총 점수 41.74점으로 2위 키움 히어로즈 박병호(기자단 투표 19표, 팬 투표 5511표·총 36.97점)를 제치고 MVP의 영예를 안았다.

양현중은 8월 5경기에서 35%이닝 동안 단 2실점(2자책점)을 기록하며 3승을 올렸다. 이 기간 평균 자책점은 0.51로 KBO리그 1위에 올랐다.

특히 지난 달 4일 광주 NC전에서는 단 99구로 완봉승을 기록, 올 시즌 정규 이닝 기준 최단 시간 경기(1시간 59분)를 만들어냈다. 또한 8월28일 삼성과의 홈 경기에서는 KBO리그 역대 5번째로 1500탈삼진 고지에 올랐다.

8월 MVP에 선정된 양현중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함께 부상으로 60만원 상당의 신한은행 골드바가 증정되며, 신한은행의 후원으로 양현중의 모교인 광주동성중학교에 100만원의 기부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근대 5종, 4년만에 세계선수권 男단체전 우승

전웅태, 도쿄올림픽 개인전 출전권 획득

한국 근대5종이 4년 만에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근대5종 남자 대표팀은 7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2019 국제근대5종연맹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단체전에서 4309점을 얻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진화(30·LH), 이지훈(24·국군체육부대), 전웅태(24·광주광역시청)로 구성된 한국은 헝가리(4272점)와 영국(4258점)을 따돌리고 2015년 독일 베를린 대회 후 4년 만에 정상에 올랐다.



단체전은 선수들의 개인전 성적을 합산해 순위를 가린다. 한국 선수 중에는 전웅태가 145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따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웅태는 이로써 개인전 입상자에 주어지는 2020 도쿄올림픽 출전권도 손에 넣었다.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미→김삿갓동산→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